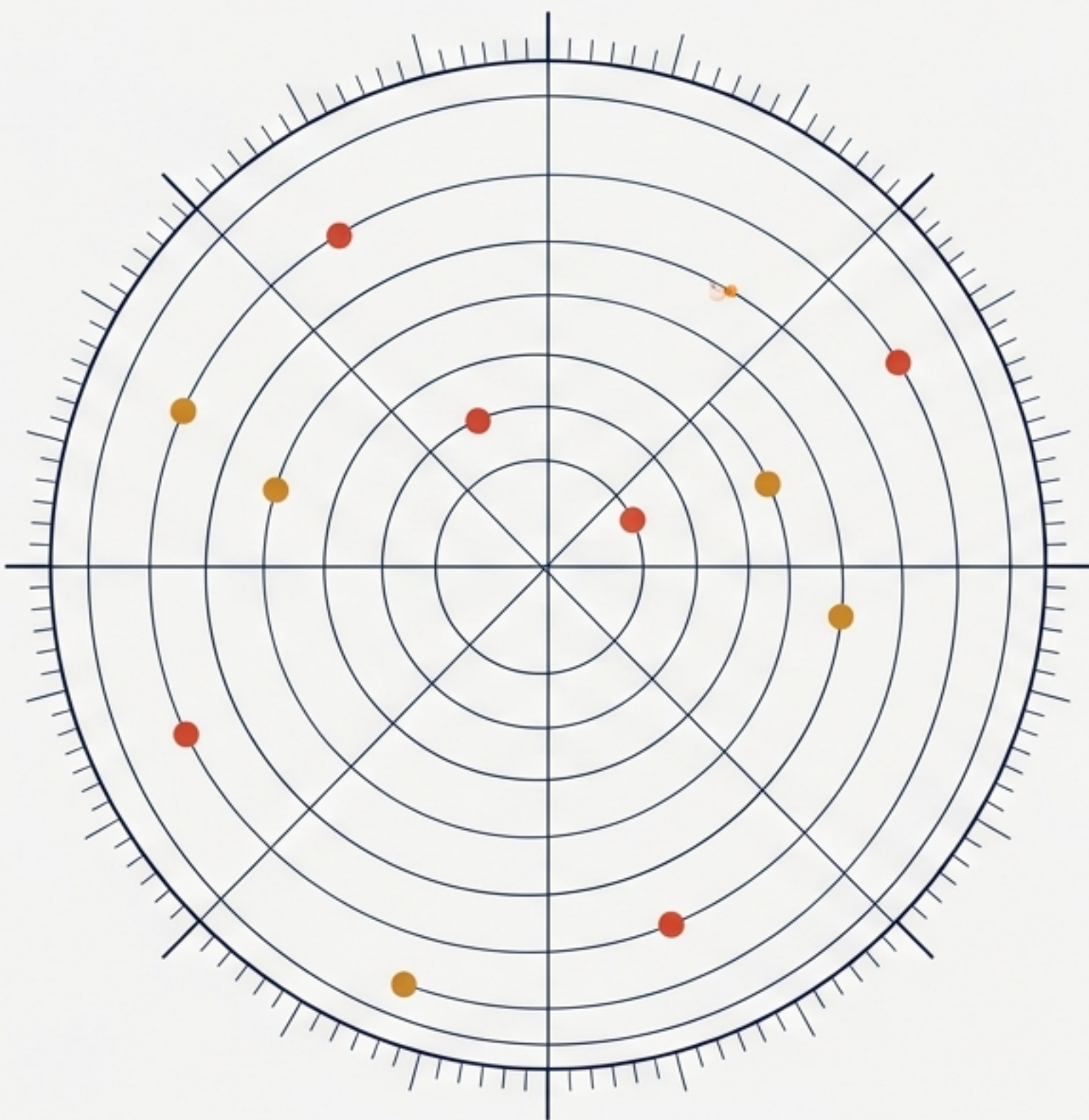




장중 업데이트: 2026-09-24T13:02:14.712207+09:00

태풍의 눈: 폭풍 전야의 글로벌 시황과 추석 겹 리스크 내비게이션

2026.09.24 장중 마감 브리핑 및
연휴 전 대응 전략

본 리포트는 글로벌 매크로 변동성 및 국내외 증시 디커플링 현상을
분석하여 전략적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매크로 트리거

미·이란 지정학 리스크 심화. **WTI \$92**
및 **금값 동반 급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美 10년물 금리 5.1% 돌파**



시장의 괴리(Divergence)

나스닥 급락(-1.13%) 속에서도 아시아/유럽
증시는 방어 성공. 특히 국내 반도체 주도의
4일 랠리와 수급 간 **극심한 모순** 발생



추석 갭 리스크(Gap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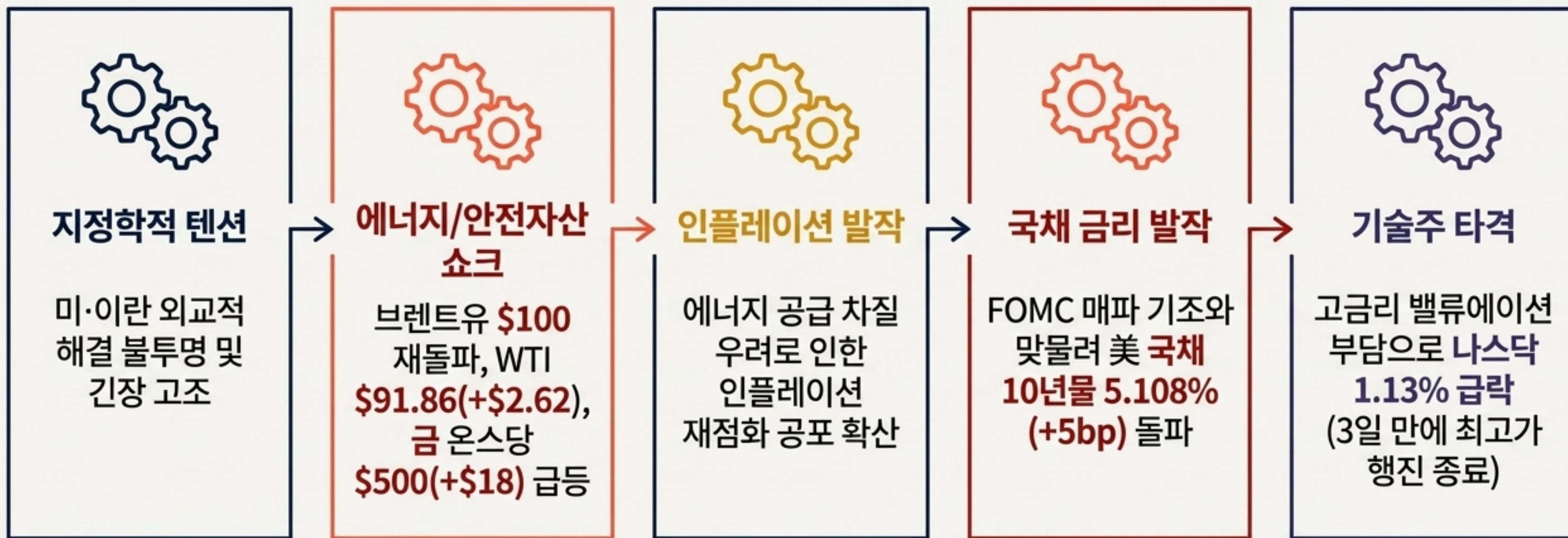
한국 증시 **4일 휴장 기간** 중 쏟아지는
글로벌 빅 이벤트(트럼프-시진핑 회담,
FOMC, 경제지표) **폭격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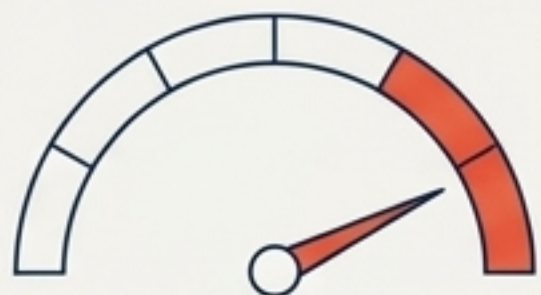
방어적 단기 전략

차익실현을 통한 **현금화** 및
에너지·금 등 **안전자산 비중 확대**,
글로벌 해외주식 데스크 활용

매크로 트리거 연쇄 작용 (Macro Domino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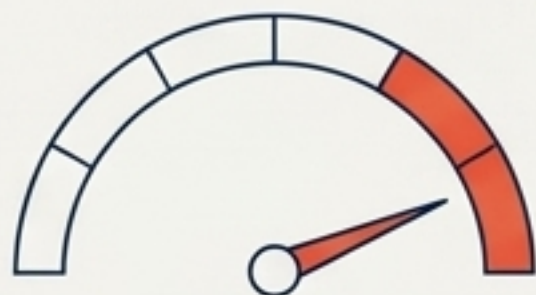


FICC 레이더 및 자산별 온도 (Current Asset Climate)



미 국채 10Y
5.108%
(+5bp)

FOMC 매파 기조에
상승 압력 확대



WTI 원유
\$91.86
(+\$2.62)

亞 원유수입량 확대 및
OPEC 감산 연장 기대



금 (XAU)
\$500
(+\$18)

중국 수입량 1,000톤 돌파,
펀더멘털 견조



원/달러 환율
1,365.58원
(-5.30원)

유로
강세(EUR/USD 1.1790)에
따른 달러 약세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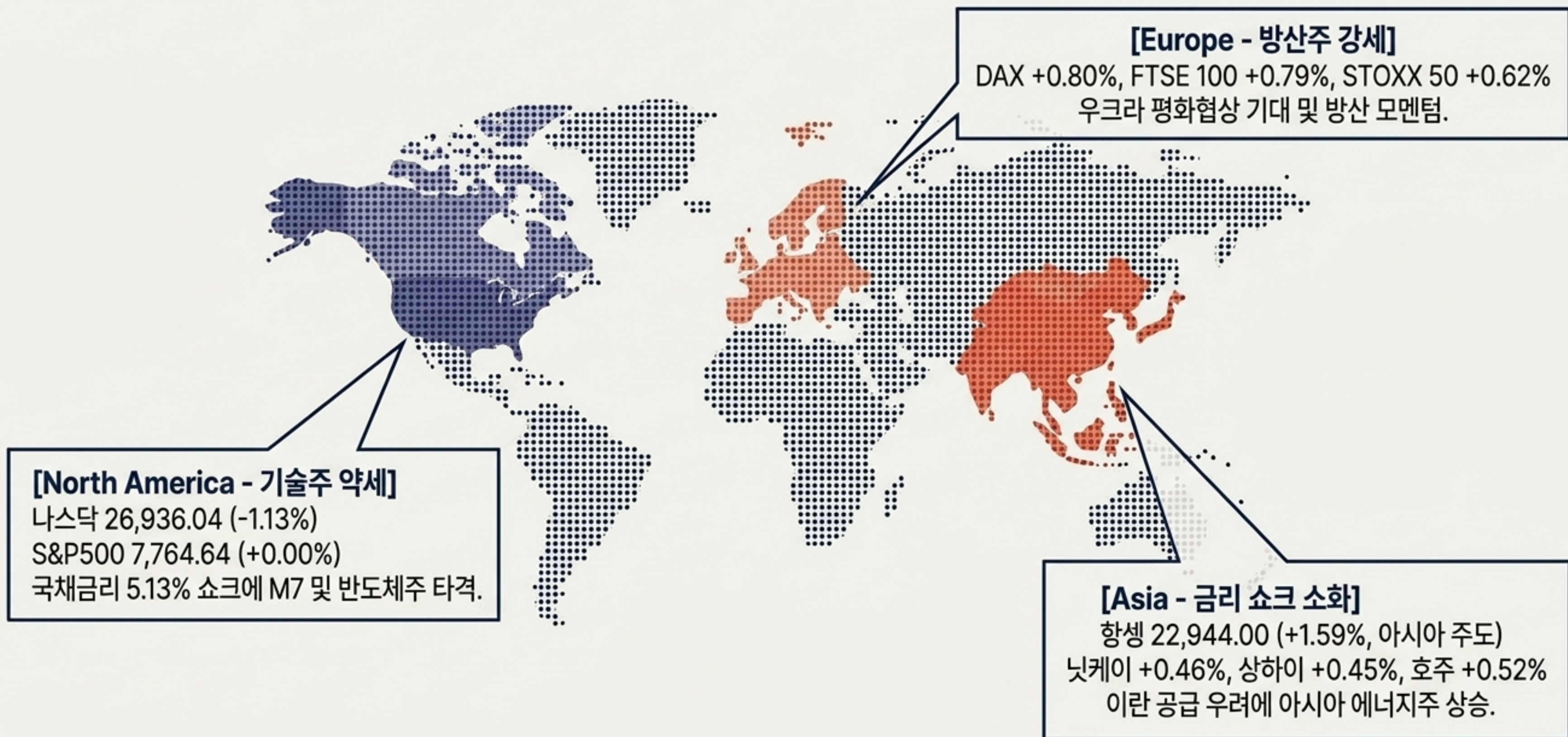
비트코인

\$500
(+\$1,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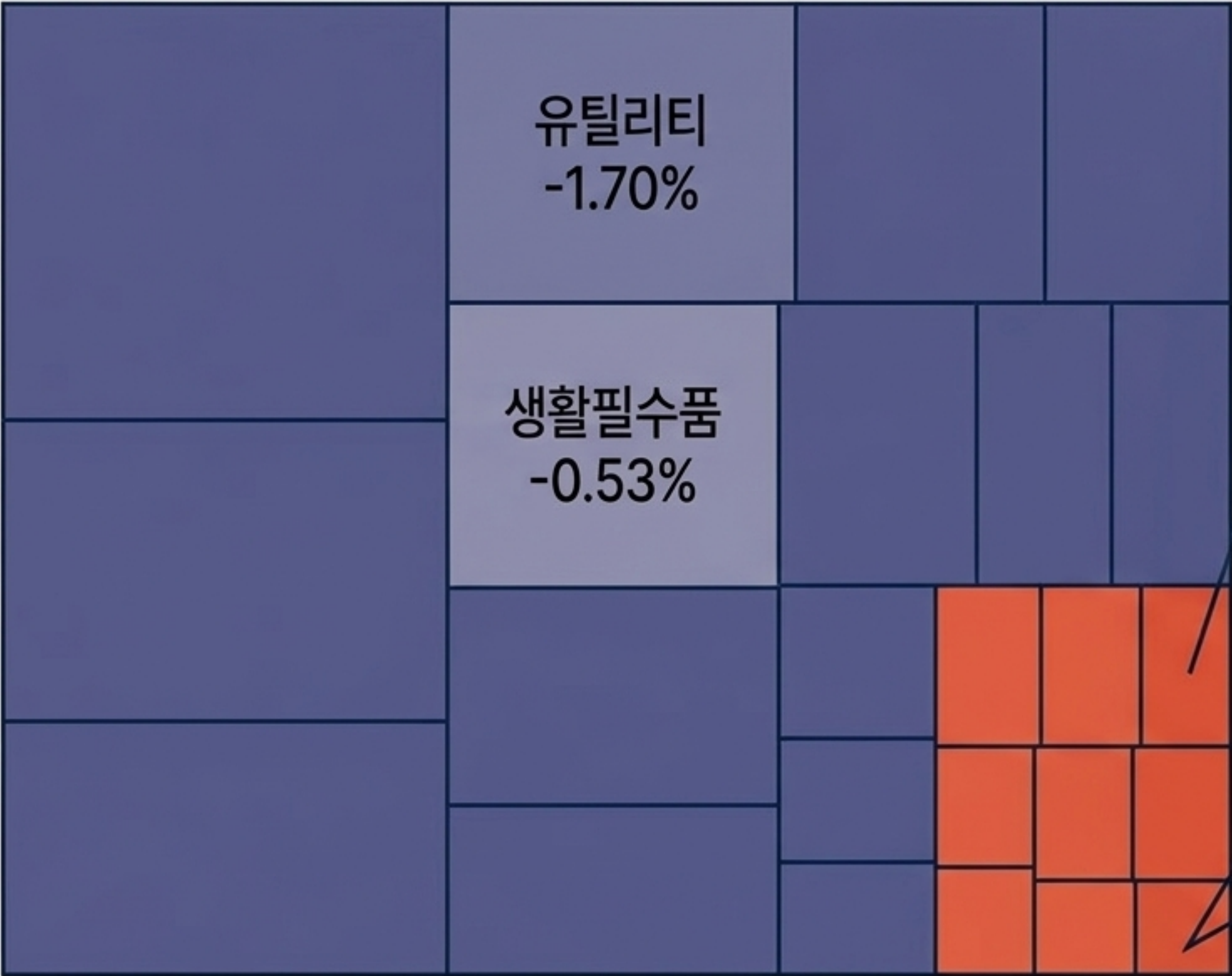
ETF 순유입 지속에
따른 급등세



글로벌 증시 히트맵: 차별화된 금리 쇼크 소화 (Global Divergence)



미국 증시 딥다이브: 기술주 조정 속 피난처를 찾는 자본의 이동 (섹터 순환매)



[상승 주도 대안 섹터]

부동산 (+7.42%):
단기 낙폭 과대 후 강한 기술적 반등

에너지 (+2.00%):
유가 급등 모멘텀 직접 수혜

기타 대안주:
우주, 보안, 양자컴퓨터 관련주 강세 (반도체 약세 속 보안주 상승 뚜렷)

국내 증시 스냅샷: KOSPI 7080 고지전 방어 성공



KOSPI: 7,080.92 (+0.90%, +63.01pt)
7000선 안착 및 4거래일 연속 상승

KOSDAQ: 844.48 (+1.21%, +10.10pt)

핵심 동인: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강세가 지수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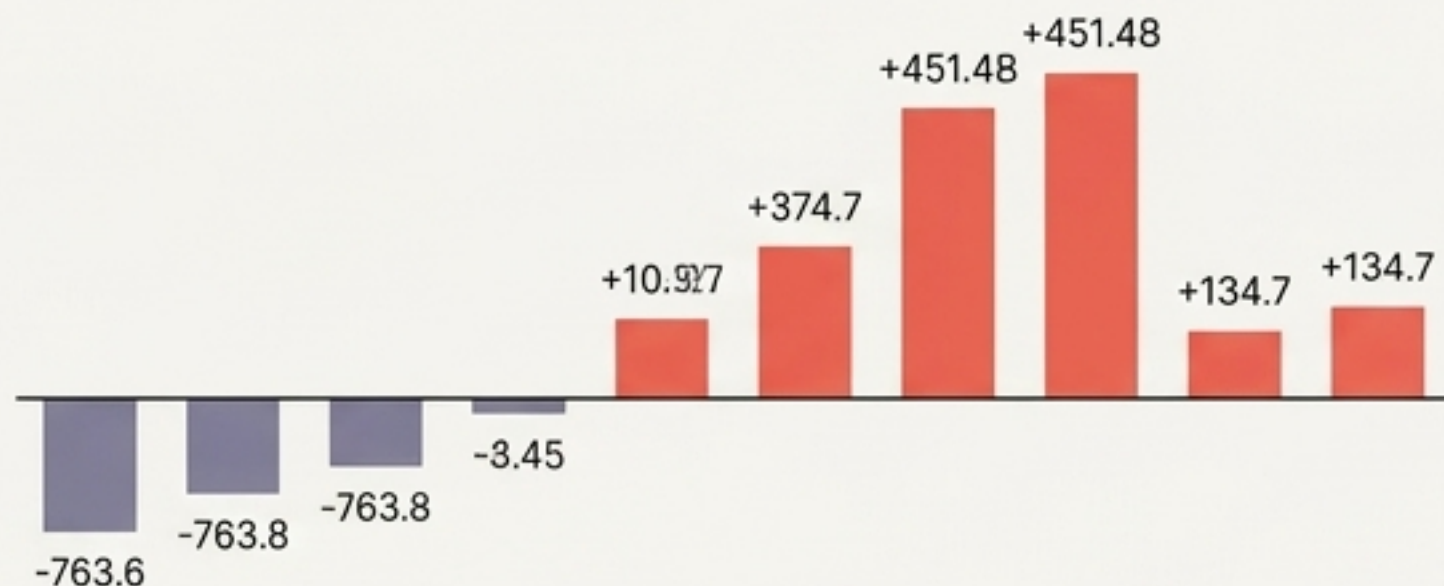
단기 리스크:
연휴 앞둔 관망세 확산으로
장중 상승폭은 일부 반납.

지수 방어의 역설 — KOSPI 7000 달성과 개미의 눈물

[외국인/기관의 반도체 싸름이]

수급: 외국인 +451.4만주, 기관 +134.7만주 순매수

타겟: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 매수로 7080선 지지



[개인의 이탈과 손실]

수급: 개인 -763만주 대규모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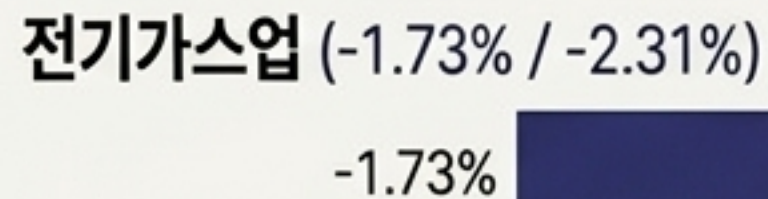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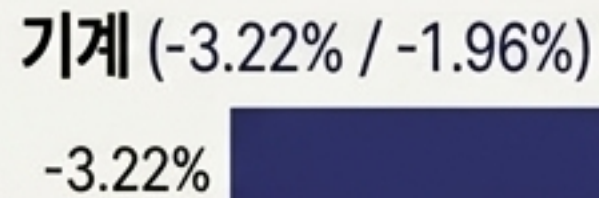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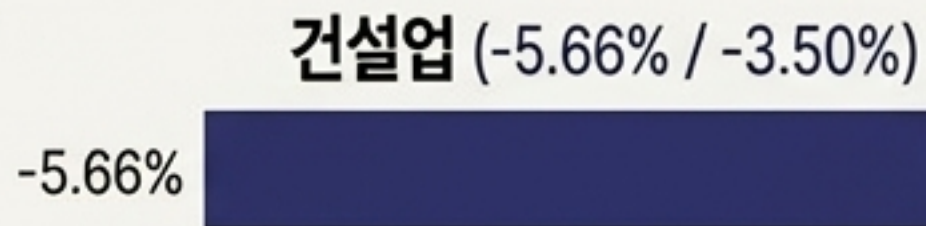
코스피 7000인데 개미는 울었다...27년 만에 최악의 투자 성적

추석때 주식 얘기 꺼내도 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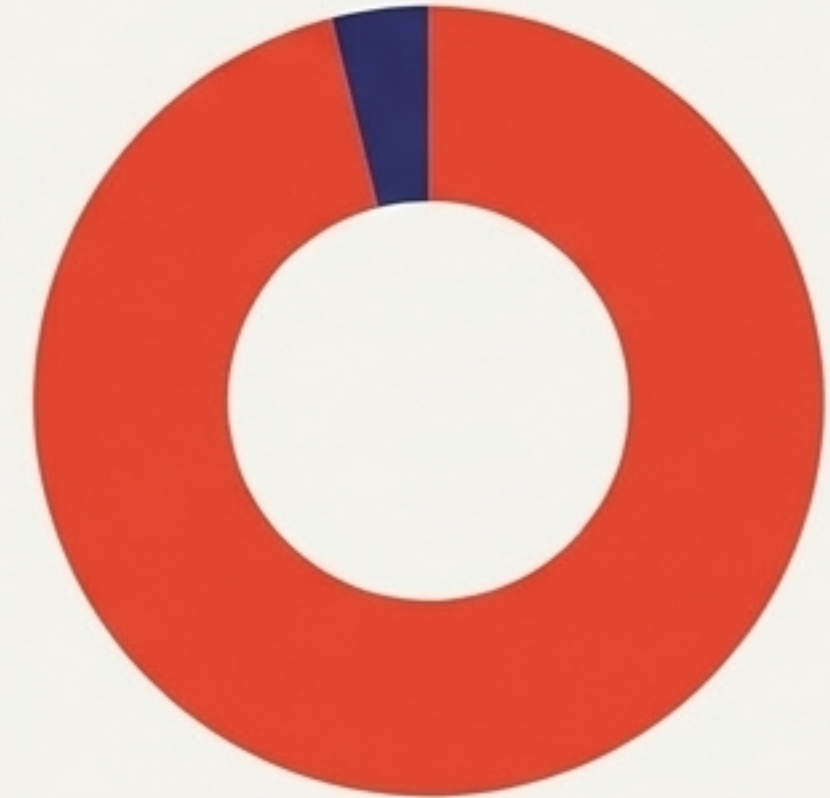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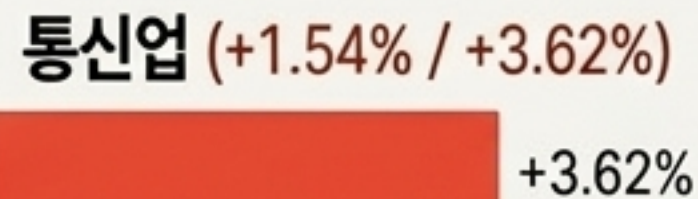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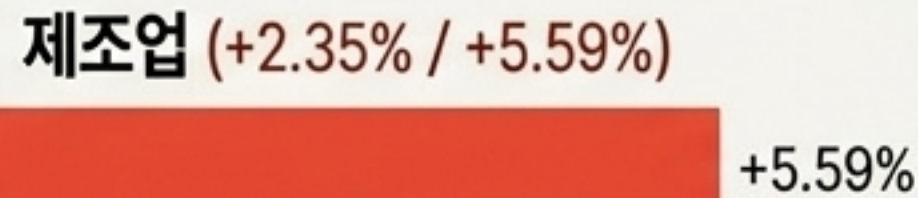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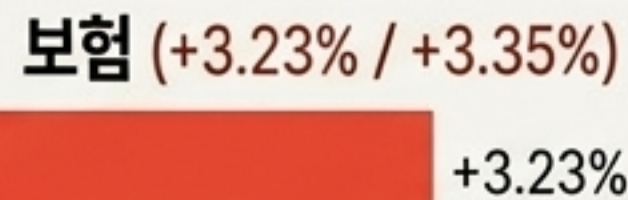
결론: 지수 상승 랠리와 개인 체감 수익률 간의 극단적 디커플링 발생. 수급 대비 뒤집힘 속 상승 지속성 점검 필요.

국내 섹터 수익률 맵 및 시총 상위 동향

[하락 섹터 (1D / 1W)]



[상승 섹터 (1D / 1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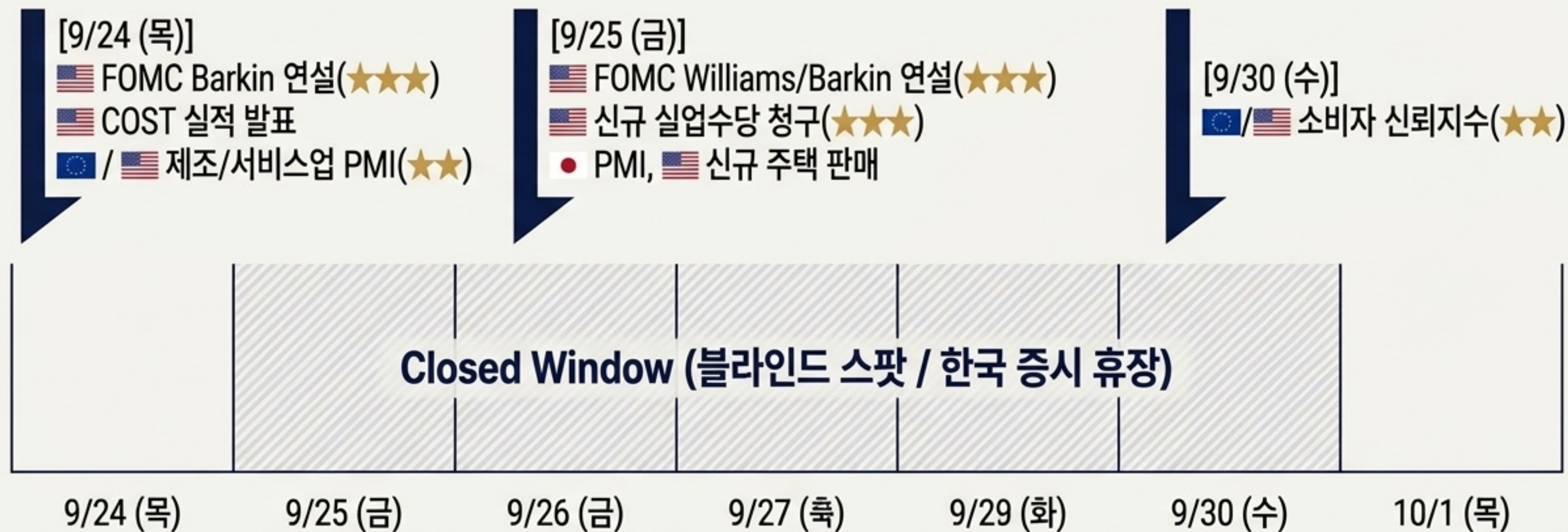
[시총 상위 견인차]

삼성전자: 286,500원 (+3.62% / 시총 1675조)

SK하이닉스: 1,863,000원 (+1.25%)

삼성바이오로직스(-1.29%), 현대차(-0.97%)
등 타 대형주는 하락세.

The Blind Spot — 나흘간의 공백, 그리고 쏟아지는 글로벌 이벤트



핵심 메시지: 연휴 동안 축적된 매크로 변수들은 개장 직후 거대한 '갭(Gap) 등락'으로 반영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메가 이벤트 레이다: 시장 판도를 바꿀 2대 핵심 변수



[Radar 1: 통상 및 지정학 리스크]

트럼프-시진핑 회담 개막

관전 포인트: **무역 분쟁 타결 여부** 및 대중국 견제 수위.
아시아 증시 및 수출주 펀더멘털에 직접적 타격 가능성.



[Radar 2: 매파적 통화정책 리스크]

릴레이 FOMC 발언

관전 포인트: 10년물 **금리 5.1% 돌파** 상황에서
Barkin, Williams 등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강도**.
기술주 밸류에이션의 추가 조정 트리거.

Tactical Action Plan — 연휴 전 포트폴리오 재조정 매트릭스

	● 비중 축소 / 현금 확보	
	단기 급등한 기술주 및 수급 이탈이 심각한 건설/기계 섹터 일부 차익실현. 갭 리스크 대비 현금 비중 확대.	
	● 관망 / 방어	
	반도체 대형주(수급 쏠림 지속성 확인 필요), 증권가의 '빅이벤트 후 랠리 기대'는 유효하나 연휴 리스크 회피가 우선.	
	● 비중 확대 / 헷지	에너지(유가 급등 수혜), 금(안전자산) 비중 확대. 24시간 운영되는 증권사 '글로벌 해외주식 데스크'를 활용한 미국장 실시간 방어.

파도는 높고, 배는 항구에 묶여 있다.

1. 매크로 압력 극대화

5.1%를 뚫은 미 국채 금리와
유가/금값의 동반 상승은 단순한
단기 노이즈가 아닌 구조적
인플레이 공포의 귀환입니다.

2. 모순의 시장

코스피 7080선 지지 이면에는
27년 만의 최악 수익률을 마주한
개인의 이탈과 반도체 편중이라는
위태로운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3. 갭 리스크 헷지

나홀간의 공백(블라인드 스팟) 동안
시장의 변동성을 피할 수 없다면,
무리한 베팅보다는 확실한
안전마진(안전자산+현금) 확보가
승률을 높이는 유일한 나침반입니다.